

서울시, 건축자산 발굴·관리 위한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서울시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2019. 7. 30.

서울시가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자산의 범위를 넓혀 건축자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생을 이끄는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번 계획은 건축자산에 대한 조사·발굴·관리·활용을 위한 실천과제와 전략을 담은 서울시 최초의 종합계획이며, 이에 따라 2022년까지 3대 실천과제와 이에 대한 11개 전략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적으로 2020년 6월까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건축자산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권역별·연차별로 실시하여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축자산을 발굴하여 목록화하고, 각 자산별 특성과 관리 및 활용전략 등을 담게 된다.

또 현재 3개에 그치고 있는 ‘우수 건축자산’을 대폭 늘려 수선비용 지원, 건축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마중물 사업으로는 공공이 소유한 건축자산 50여 곳부터 등록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최대 1억 원의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물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건축법」과 「주차장법」 등 일부 규정이 완화되는 내용의 건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 예정인 건축자산의 역사, 공간, 특성, 유지·관리를 위한 조사 및 기록화 사업도 시작한다. 이와 함께 공모, 전시, 세미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열어 건축자산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감대 형성에 나설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월 1일자로 서울주택도시공사 내 전담 조직(건축자산처)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전담조직에서는 2022년까지 시행계획을 추진함과 동시에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세제감면 등을 추진하여 시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건축자산의 조사 및 기록	① 건축자산의 발굴 조사, DB 구축 ② 발굴체계 구축(전문가, 시민제안 등) ③ 건축자산 기록화 ④ 정보 제공 및 공유(포털, 매뉴얼)
건축자산의 창조적 활용 및 관리	⑤ 한옥 등 건축자산 유지·관리 지원, 생활서비스 지원, 관련 산업 육성 ⑥ 창조적 활용(매입임대, 공유공간 조성) ⑦ 관리(건축자센터 및 중개플랫폼 운영)
건축자산의 가치공감 확산	⑧ 소유주 공감 확대(공모, 전시, 홍보) ⑨ 시민공감 확대(정책 브랜드 개발) ⑩ 공공선도 사업 추진 ⑪ 민간단체 등 특성화 활동주체 육성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3대 실천과제 및 11개 전략

출처: 서울시, (2019). 서울시, 한옥 등 '근·현대 건축자산' 전면 발굴·지원·재생... 첫 종합계획, 7월 30일 보도자료.

* 건폐율, 조경면적, 공개공지, 건축선, 건축물 높이, 주차장 확보 등 총 24개 항목